

북한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국사 인식

윤 세 철
(역사교육과)

I. 머리말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 소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역사학에서도 북한의 학술 서적들이 발간되고¹⁾ 북한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²⁾ 북한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³⁾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북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역사교육의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한다.

오늘날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역사 연구와 서술도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교육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북한의 한국사 인식 및 주체사관에 비추어 검토하고 이를 우리 학계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책은 북한의 국사교과서인 교육도서출판 간행『조선력사: 고등중학교 3학년용』(1983)과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4학년용』(1982)이다. (이하 『조선력사 (3)』, 『조선력사 (4)』라고 칭함)⁴⁾ 『조선력사』(3), (4)는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3·1운동까

1) 북한의 한국사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조선전사』와 대표적 개설서인 『조선통사』가 영인, 또는 재인쇄된 것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 중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1989). 『북한의 한국사 서울동향과 분석』.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편(1989). 『북한이 보는 우리역사』. 을유문화사.

정용욱 외(1989).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근현대편)』. 일송정.

안병우 · 도진순 편(1990). 『북한의 한국사 인식』(I) · (II), 한길사.

3) 강우철 · 신형식(1990), 남 · 북한 국사교과서(중학교)의 비교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7.

윤원상(1990), 남한의 제일동포용 「한국사」 교과서와 북한의 조총련 「조선력사」 교과서의 비교 분석.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이 글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남한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위의 『조선력사』와 같은 시기인 중학교 4차교육과정과 그에 의거하여 써어진 『국사』 교과서를 가리킨다.

지를 다루고 있다. 그 이후의 현대사는 단순히 국사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사상교육인 김일성 및 공산당의 혁명 역사로 별개의 교과로 취급되고 있다.

II. 역사교육 과정

1. 역사교육의 이념

북한에서는 교과의 목표나 내용 등을 규정하여 놓고 있는 별개의 「교육과정」은 없다. 다만 교과 편제에 관한 「과정안」이 있을 뿐이다. 이 「과정안」은 주체사상이라는 전체적인 특에 맞춰 짜여져 있으며 역사교육도 그 일부이다. 북한에서 교육의 목적은 혁명의 완수에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북한의 교육 이념, 교육과정 및 방법의 기초가 되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를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일성, 1977)

고 말하고 있다. 역사 서술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교양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사회주의 애국주의란 그 자체가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사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학습은 하나의 혁명 사업으로 여겨진다. 학습이 혁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 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본을 혁명정신을 기르는 데 두고 있고 그 본질을 이루는 것이 주체사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혁명의 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일하기 좋아하고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웃사람을 존경하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돋고 이끄는 고상한 품성을 가진 새 형의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있다. (리영복, 1984: 89-90)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습에서도 주체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교육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 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고 한다. 조선 사람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원만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책임있게 수행하려면 조선의 과거와 현재, 조선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혁명을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 지리,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역사, 특히 인민의 투쟁 역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역사학의 목적을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를 주체적 입장에서 더욱 심화시키며 우리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적 죄행을 역사적으로 낱낱이 폭로 단죄함으로써 인민들을 반제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양형섭, 1972: 264) 데 두고 있다.

혁명적 학습의 내용은 정치학습, 과학기술학습, 다방면적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의 3가지로 나뉘어진다.⁵⁾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교육인 정치학습이다. 사상교육의 목적은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를 기르고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하여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한다.

당은 학생들에 대한 사상 교양에서 기본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워주는 데 두고 있다.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충실성 교양을 원리적으로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대하여 깨우쳐 주는 방법으로도 하고 충성심의 산 모범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도 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고 있다. (리영복, 1984: 90)

이러한 정치학습의 중심은 한국 현대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전통 학습, 즉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혁명역사이며 모든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 데 필요한 사상적 내용을 풍부히 담고 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습에 관한 주체이론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이론에 따라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여 조선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를 똑똑이 알게 하며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 체계, 불멸의 혁명 업적과 고귀한 투쟁 경험, 혁명적 사업 작품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른바 ‘항일유격대식 학습’을 그 정신뿐만 아니라 내용, 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걸쳐 모범으로 삼고 있다.

근대까지의 역사는 다방면적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정

5) 1977년에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으로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주체사상의 학습 이론이 정리되면서 과학기술교육 중 사회과학 부분과 체육교육을 합쳐서 다방면적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치학습과 별 차이가 없다. 다방면적 지식 역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인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중 역사 및 지리학습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원만히 하며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하려면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 조국의 역사와 지리를 잘 알아야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각오를 굳게 가질 수 있으며 애국자,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조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하여 잘 알아야 우리나라 혁명에 대한 자주적 입장과 독자적인 주견을 세우고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이용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전설할 수 있다. (금성청년출판사 편, 1982: 71)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조선혁명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육성이라는 교육의 일반적 목적이 그대로 각 교과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역사학습의 기본을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학습하는 데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래 침략자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온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반침략투쟁, 조국방위의 투쟁 역사

둘째,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계급 투쟁의 역사

셋째,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온 창조의 역사(금성청년출판사 편, 1982: 71-72)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세에 대한 민족의 투쟁, 지배계급에 대한 인민대중의 투쟁, 자연에 대한 인간의 투쟁 역사가 역사학습 내용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체사관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사회역사 발전의 근본 동인으로 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역사교육은 조선혁명을 실천해 가는 공산주의 혁명가를 기른다는 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며,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자주성과 창조성의 육성을 그 원리로 삼고 있다. 이는 현대사, 즉 김일성과 당의 혁명역사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배우는 기본인 것이다.

2. 교과과정

197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 북한의 학제에서 남한의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고등중학교이다. 고등중학교는 중등반 3년, 고등반 3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등중학

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24개로 크게 정치사상교양과목, 일반과목, 기술과목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역사와 관련된 과목은 정치사상교양과목에 속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일반과목에 속하는 「역사」이다. 「고등중학교 과정안」에 나타나 있는 이들 과목의 교과편제는 <표 1>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는 초등학교 인민학교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과 함께 보통교육에서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영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영광찬란한 혁명역사를 체계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사회과학출판사 편, 1985: 210) 과목으로 현대사 교육에 해당한다.

「역사」는 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편제한 것으로 2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조선역사」, 5, 6학년에서는 「세계역사」를 배운다. 「조선역사」는 총 172시간으로 전체의 2.6%, 「세계역사」는 108시간으로 전체의 1.6%이다. 「역사」의 총 시간 수는 280시간으로 전체 시간 수의 4.2%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의 경우 중학교에서 국사가 136시간으로 전체 시간의 5.6~5.9%, 세계사가 68~116시간으로 전체의 2.8%~5.0%, 합계 8.4~10.9%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⁶⁾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이 184시간으로 전체의 2.8%,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가 197시간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

<표 1> 고등중학교 역사 관련 과목 주당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시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2	1(1학기)	1(1학기)				184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				2	2	3	197
역사		1	2	2	2	2	280
과목합계	31	32	32	34	34	34	6,326

출전: 허동찬, 1990: 159의 <표>에서 재구성

6) 중학교 4차교육과정의 경우 2,3학년 각각 총 1,156~1,224시간 중 국사는 2,3학년에 주당 2시간씩 총 136시간, 세계사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2학년에는 지리와 함께, 3학년에는 사회(일반사회)와 함께 각각 2~3시간씩 배우게되어 있다. 사회 시간 중 절반이 세계사 수업에 할당되는 것으로 보면 중학교 세계사의 총 시간은 68~102시간이 된다. 현행 5차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시간 배당은 변함이 없다. 다만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사를 1,2학년에 배우게 되어 있으며, 1학년 사회는 주당 3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

어 이들을 역사 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총 661시간으로 전체 수업 시간의 10.0%가 되므로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역사」 2과목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과목들이 북한의 역사교육에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현대사 교육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III. 『조선력사』의 체제와 구성

『조선력사(3)』은 총 144쪽으로 원시부터 고려 말까지를 6개장, 27개 절로, 『조선력사(4)』는 총 159쪽으로 조선부터 3·1운동까지 8개장, 29개 절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조선력사』 각 장의 목차를 우리의 중학교 『국사』와 비교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조선력사』의 단원은 시대구분에 의하여 나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의 구성은 북한에

<표 2> 『조선력사』와 『국사』의 목차 비교⁷⁾

조 선 력 사	국 사
원시공동체 사회	우리나라 역사의 여명
노예소유자사회, 고대국가들	
봉건사회의 성립—세나라와 가야국들	삼국의 형성과 발전
발해와 후기신라, 9세기 농민전쟁	통일신라와 발해
10~12세기 고려 봉건국가, 12세기 후반기 전국적 농민전쟁	
13~14세기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한 고려인민들의 투쟁, 고려의 멸망과 리조 봉건국가의 성립	고려 시대의 생활
15세기 봉건제도의 강화 발전	조선의 발전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17~18세기 전반기 상품화폐경제의 장성과 계급적 대립의 격화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과 봉건제도의 위기	조선 사회의 새 동향

7) 『조선력사』의 단원은 1장, 2장…으로, 『국사』는 I, II…로 단원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조선력사』(3), (4)와 『국사』(상), (하)는 책마다 각각 단원 번호가 따로 붙어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통합하고 단원 번호는 붙이지 않았다.

조 선 력 사	국 사
미일자본주의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시작	
1884년 부르죠아 혁명, 1894년 농민전쟁과 부르죠아 개혁	근대화의 시련과 자주운동
반일의병운동과 애국문화운동	
3·1인민봉기와 부르죠아 민족운동의 종말	일제 침략과 독립투쟁

서 정설화되어 있는 원시-고대(고조선, 부여, 진국)—중세(B.C. 1세기~1860년대)—근대(1860년대~1925년)⁸⁾의 시대구분이 교과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B.C. 1세기부터 1960년대까지 걸쳐 있는 중세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내포하고 있는 근대를 원시나 고대와 같이 한 장으로 다룰 수 없는 서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대별로 단원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력사』의 구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란이나 대외전쟁, 근대 민족운동의 서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전체 14개 장 중에서 9개 장에 이러한 성격의 제목이 붙여져 있으며, 56개 절 중에서 24개 절이 이에 관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서술 분량도 두드러지게 많다. 이에 관한 『조선력사』의 서술 분량을 사건별로 『국사』와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란이나 대외항쟁에 관한 『조선력사』의 서술은 『국사』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고려말, 조선전기, 18~19세기 초, 개항 직후와 광무 연간의 민란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투쟁의 역사를 중시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동인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므로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알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의 반침략투쟁의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인민에 대한 높은 공지와 자부심, 외래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더욱 배양해야 하며, 계급투쟁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인민을 착취하는

8) 북한에서는 1950년대 말, 60년대 초의 논쟁을 통하여 사회구성체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사의 시대구분을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1962년판 『조선통사』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주체사관에 의거하여 역사의 전면적 재해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대구분의 기준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바뀌었으며 그 결과 시대구분에서도 일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전의 시대구분과 특히 두드러진 차이는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타·드동맹)의 결성을 현대사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조선전사』의 시대구분 및 북한학계의 한국사 시대구분 논쟁의 추이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송호정(1990). 전근대사의 시대구분. 『북한의 한국사 인식(I)』.

이윤상(1990). 근현대사 시대구분, 『북한의 한국사 인식(II)』.

〈표 3〉 민란·대외항쟁에 관한 서술 분량 비교(단위: 쪽수)

사건	조선 역사	국사
고조선과 한의 전쟁	1.3	0.2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8.4	1.7
삼국통일기 대당 전쟁	0.8	0.7
고구려 유민의 대당 항쟁	0.7	0.2
신라 말 민란	3.5	0.2
고려와 거란의 전쟁	6.7	1.7
무신집권기 민란	9.0	1.1
고려와 몽고의 전쟁	5.0	1.6
삼별초의 항쟁	1.7	0.4
고려 말 농민·노비의 저항	0.6	—
이시애의 난	2.3	0.1
조선 전기의 민란	0.9	—
임진왜란	11.7	6.1
정묘·병자호란	1.6	1.1
18세기~19세기 초의 민란	1.8	—
홍경래의 난	4.4	0.8
임술민란	2.7	0.4
제네랄셔만호 사건	2.4	0.1
병인양요	2.6	0.9
신미양요	3.6	0.1
대원군 집권기 민란	0.3	—
1870, 80년대 반일항쟁	1.0	—
임오군란	2.9	0.8
갑신정변	4.3	1.1
1880년대 말, 90년대 초 민란	0.5	—
동학혁명	7.2	2.4
을미의병	1.8	0.6
광무 연간의 민중항쟁	0.7	—
한말 의병항쟁	6.9	3.7
독립협회	1.0	2.3
애국계몽운동	3.5	9.5
3·1운동	5.5	4.1
합계	107.3	41.9

계급과 제도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높은 계급의식을 적극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력사』에서는 교과서 내용의 서술 자체에 더 힘을 쏟고 있으며 그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홀한 느낌을 준다. 교과서에 실린 학습자료가 매우 빈약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국사』와 『조선력사』의 학습보조자료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학습보조자료의 수⁹⁾

	삽화	지도	표·도표	사료	합계	교과서 쪽수	1쪽당 자료수
조선력사	55	27	—	—	72	303	0.23개
국사	170	33	4	8	215	316	0.68개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력사』에 들어있는 학습보조자료의 수는 『국사』에 비하여 월등히 적다. 지도의 숫자만 비슷할 뿐 삽화는 크게 부족하며 도표나 사료의 경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지도의 경우도 민란 또는 대외항쟁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 26개 중 18개나 차지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학습자료를 많이 실었다고 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사』의 경우 학습에서 효과를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단순한 인물 사진이나 중학생으로는 그 내용을 알기 힘든 史書 내용을 사진으로 그대로 싣고 있는 경우도 많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조선력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선력사』에서 학습자료가 적은 이유는 학습 효과가 높은 자료만을 골라서 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쏟은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IV. 서술상의 특징

『조선력사』의 서술은 역사의 중심을 인민대중에 두고 있는 주체사관의 관점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조선력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적 용어를 보면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국사』와 달리 표한되고 있는 『조선력사』의 용어는 〈표 5〉와 같다.

9) 이 통계는 교과서 본문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사』의 경우는 그밖에 책 머리에 천연색 화보(사진)을 싣고 있으며, 각 단원마다 사진과 연표가 들어있으나 『조선력사』에는 없다. 또한 『국사(하)』의 경우는 『조선력사』와 비교를 위하여 3·1운동 때까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0) 단순한 인물사진 또는 영정이 24점, 삽화로 실린 서지류는 38점이나 된다. 그 대부분은 교육적 효과를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정도월, 1985. 참조)

〈표 5〉『조선력사』와『국사』의 비교

조 선 력 사	국 사	비 교
세나라 시기	삼국시대	
후기신라	통일신라	
평양농민군들의 투쟁	—	조위총의 난을 가리킴
공주 농민군의 투쟁	공주 명학소의 저항운동	망이, 망소이의 난(고교『국사』)
경상도 농민군의 투쟁	김사미·효심의 저항운동	김사미의 난(고교『국사』)
만적의 폭동 계획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리조정부	조선정부	
함경도 농민전쟁	—	이시애의 난을 가리킴
임진조국전쟁	임진왜란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	홍경래의 난	
1862년 농민폭동	전주민란	
미제 침략선 샤만호의 격멸	제네랄 셔어먼호 사건	
프랑스 함대 침입	병인양요	
1874년 미제의 대규모 침입	신미양요	
1882년 군인폭동	임오군란	
1884년 부르죠아 혁명	갑신정변	
1894년 농민전쟁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현행『국사』)
1894년 부르죠아 개혁	갑오경장	갑오개혁(현행『국사』)
초기애국문화운동	독립협회	
애국문화운동	애국계몽운동	
3·1인민봉기	3·1운동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의 역사교과서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민란이나 대외항쟁 관련 부분이다. 『국사』에서 '난' 또는 '저항'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건들을 『조선력사』에서는 '투쟁' 또는 '폭동'으로 부르고 있다. '폭동'이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그 사건을 의의를 별로 중시하지 않을 때 사용되지만 인민대중의 투쟁을 역사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북한에서는 그 사건을 높이 평가할 때 사용된다. 근대사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나 '부르죠아 개혁'이나 '부르죠아 혁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민대중의 투쟁 방식의 변화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북한에서 근대의 기준을 제국주의의 침략과 그에 따른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용어가 중·고교 교과서 사이에 다르다든

지, 현행 교과서에서 바뀐 것은 그때문이다.

인민대중 중심의 역사 서술에 따라 지배층 입장의 서술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교과서에 왕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각 왕조를 세운 왕이나 광개토왕이나 세종과 같이 한국사에서 흔히 중시되는 왕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 대조영, 왕건, 이성계 등의 이름은 나오지만 고조, 태조 등의 왕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의자왕, 보장왕, 공양왕과 같은 왕조의 마지막 왕이나 고려의 의종, 조선의 순조와 같이 역사적 혼란이 일어났던 시기의 왕명만이 등장한다. 이는 국왕의 무능이나 사치향락 생활 등으로 인하여 역사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려 의종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46년 왕자리에 들어 앉은 의종은 고려 어느 왕보다도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개경을 비롯한 여러 곳에 궁궐과 루각, 절간을 지어놓고 매일 같이 놀음을 일삼았다. 또한 전국의 절간들에 명령하여 자기가 오래살도록 부처에 빌게 하였으며 더욱기 수만명의 중놈들을 모아놓고 중잔치를 련이어 벌리였다. (조선력사(3) : 115)

왕 이외의 지배층의 이름은 종종 나오는 데 대부분 을지문덕, 연개소문, 강감찬, 이순신, 임경업 등과 같이 대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들이다. 이 경우에도 김유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신라가 당나라를 이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것을 외세를 끌어들인 사대주의적 행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모든 책에서 그러하듯이 『조선력사』에서도 김일성의 교시는 역사 서술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절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와 같은 말로 김일성의 교시를 결론으로 먼저 제시하여 놓고 그 결론을 입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머리말과 총 56개절 중 39개 절에 걸쳐 67개의 김일성 교시가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서술의 태도는 왜곡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가 김일성에 의하여 비로소 주체적인 입장에서 바로잡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교시는 대부분 상식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사료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의 교시라고 하여 인용되고 있는 다음의 몇가지 예를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①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음악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또 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력사(3) : 97)

② 옛날에 이름난 화가 솔거는 벽에 소나무를 어찌나 잘 그려놓았는지 날아가는 새들이 그것이 진짜 소나무인 줄로 알고 거기에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선력사(3) : 94)

③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조선력사(4) : 70)

①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②의 솔거의 일화는 『삼국사기』 「열전」 8에 나오는 것은 김일성의 교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③은 북한에서 역사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곳곳에서 거의 비슷한 말을 반복하여 김일성 교시라고 인용하고 있다. (조선력사(3) : 30, 84, 116; 조선력사(4) : 18. 특히 조선력사(3) : 116의 김일성 교시는 위의 인용문 그대로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북한의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에서 특히 중시하는 이념을 김일성의 교시라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민의 노동이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김일성 교시가 7차례나 인용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조선력사(3) : 5, 10, 15, 26, 110; 조선력사(4) : 15, 53)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및 그 일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선력사』는 머릿말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한 령도 밑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역사이다.” (조선력사(3) : 3)라고 하여 김일성의 혁명활동을 가장 빛나는 역사적 사실로 미화하고 있다. 근대사에서는 김일성 일가의 민족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증조할아버지인 김응우는 제너랄 셔먼호 퇴치의 주역으로, 부친인 김형직은 1910년대 반일 운동의 지도자이며 3·1 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외삼촌인 강진석과 외할아버지 강돈욱은 평양 지방 3·1 운동의 지도자로 각각 묘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특징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현재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에서의 교훈은 현재 북한의 사회 체제와 사상, 특히 혁명에 도움이 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리순신장군은 량반지주계급 출신으로서 그가 지켜 싸운 나라는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옹호하는 봉건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리순신장군과 같은 옛날 이름있는 장군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아부대의 진격로를 열어 놓은 애국자들과 비길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선력사(4) : 46)

대다수의 역사적 위인의 경우 업적과 한계가 함께 서술되지만 시대적, 계급적 한계성이 더욱 강조된다. “리순신과 같은 인물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은 채 내세운다면 영웅이나 출세주의를 선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순신과 같은 사람보다도 오늘날 사회에서 산 모범이 될 수 있는 영웅적 인물들을 내세워 공산주의 교양에 이용해야 한다.” (김일성, 1968: 510)는 것이다. 피지배계급인 대다수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강조하고 고려 때 몽고에 투항한

것과 같은 이들의 반민족적인 반란 행위는 의도적으로 무시, 회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선후기의 문학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러한 현재적 관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소설들은(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인용자) 봉건사회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담았으므로 그때로서는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이 소설들의 내용들은 봉건유교사상과 도덕에 기초하여 씌여졌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배울 것이 못된다.(조선력사(4): 85)

모든 진보적인 것과 인민적인 것도 주어진 역사적 시대를 넘을 수 없으므로 그 의의를 엄격히 당대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학이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평가 또한 계급교양의 강화 수단이라는 데 촛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계급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은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것은 버리게 된다.

V. 시대별 서술 내용 분석¹¹⁾

1. 원시·고대

주체사관에서는 원시사회를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력이 매우 낮아서 자연을 개조하고 지배해 나가면서 누구나 다 자연의 심한 구속을 받고 있는 사회라고 특징짓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사회는 원시적인 평등 관계를 유지하는 원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조선력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원시공동체가 원시무리사회→모계씨족사회→부계씨족사회로 변화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력사(3): 5-21) 이와 같은 사회 구분 방식과 『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석기문화→신석기문화→청동기문화의 구분 방식은 둘 다 통용되고 있다. 원시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역사 체계를 개설적으로 시대구분하는 경우 『조선력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구성 원리는 뚜렷이 증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관에서는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사회관계에는 변화가 생겨나 잉여생산물 및 생산수단을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두 계급 사이에는 계급투쟁이 벌어지게 되고,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고 그들의 계급투쟁을 억누르기 위하여 국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예소유자—씨족귀족들은 이전 사회

11) 이 글의 분석 대상은 북한 교과서인 『조선력사』이므로 여기에서는 북한의 한국사 시대구분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민주주의적으로 토의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었던 씨족의 모임을 자신들의 특권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를 억압하기 위한 이러한 조직들이 국가의 발생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가 노예소유자 국가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부여 진국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의 발생 및 고조선에 관한 『조선력사』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민대중들은 노예주들을 죽이고 도망치기도 하고 놈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노예주들은 이러한 투쟁에 겁을 먹게 되었다. 놈들은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청, 감옥, 경찰, 군대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국가가 처음 생겨났다. (조선력사(3): 20)

고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노예소유자국가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8~7세기 이전에 세워졌다. 고조선도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으나 차츰 소국(작은 나라)들을 통합해 나가면서 세력이 강해졌다. 그리하여 고조선은 오늘의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으로부터 중국 료하 류역의 넓은 땅을 차지하였다. 이리하여 고조선은 벌써 기원전 8~7세기에 크고 발전된 나라로 되었다. 고조선의 수도는 왕검성이었다. 왕검성은 료하 하류 기슭에 있었다. (조선력사(3): 24)

농업생산력의 증가, 씨족 내부의 계급분화 및 족장의 권력 강화에 따른 부족의 통합 과정에서 국가가 생겨났다는 사회적 배경의 설명은 『조선력사』와 『국사』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조선력사』에서는 착취계급이 폭력적인 기구들을 수단으로 하여 권력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수한 권력기관으로 만든 것을 국가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력사』에서 고조선의 성립 시기, 사회구성, 위치 및 영역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1950년대 말의 삼국시대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 및 1960년대 전반기의 고조선 연구에 따른 것이다. 1963~65년 강상무덤 및 누상무덤을 비롯한 요하, 요동 일원의 청동기 유물·유적 발굴은 그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두 무덤에서 나온 순장의 훈적은 고조선 사회를 노예소유자 사회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강상무덤이 기원전 8~7세기로 추정됨에 따라 고조선도 적어도 이 시기 이전에 노예소유자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조선이 성립 초기부터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는 하나의 정치조직체 일 수 있는가’, ‘순장에서 나타나는 노예의 존재가 곧 노예제 국가 존재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박성봉, 1989: 36-37) 남한의 학계에서는 최근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 사회 구성 등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교과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서술을 피하고 있다. 고조선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력사』에서는 한나라가 고

조선을 멸망시킨 후 설치한 한군현의 한반도 내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나라의 세력이 미치지 않은 평양 지역에 고조선 유민들에 의하여 한군현인 낙랑군과는 별개의 존재인 낙랑국이 세워진 것으로 인식하고, 평양에서 나온 낙랑 유물을 낙랑국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무너지고 말았다. 한나라 침략자들은 왕검성과 고조선의 료동 땅을 강탈하였다. 그러나 고조선 인민들은 나라의 여러 곳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므로 한나라 침략자들은 압록강 류역 이남으로는 끼여들지 못하였다. (조선력사(3) : 32-33)

고조선의 남쪽 지방에서는 오늘의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고조선 사람들이 계속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살았다. 이것을 락랑국이라고 한다. (조선력사(3) : 33)

고조선 멸망 이후 우리나라 서북 지방에 있었던 락랑국 사람들은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켰다. 이 시기 사람들이 남긴 대표적 유적으로는 토성과 무덤을 들 수 있다. (조선력사(3) : 37)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하 유역이며, 그 영역은 평양부터 요서에 걸쳐 있고, 낙랑군과 낙랑국이 별개의 존재라는 견해는 고조선의 강역 및 위치에 관한 논쟁의 과정에서 남한 학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학설로 아직까지 정설은 없으며 낙랑 유물, 『삼국사기』 및 중국의 사서 등에 나타난 낙랑 기록 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선력사』에서는 B.C. 2세기 경 노예 착취 방법의 변경으로 피지배 인민들을 농노화하였기 때문에 노예소유자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B.C. 2~1세기에 고대국가가 붕괴하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력사(3) : 30-31) 이러한 서술은 한국사의 전반적인 발전단계에 대한 인식에 따르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말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삼국의 사회 구성을 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삼국 이전(고조선·부여·진국)을 노예제 사회, 삼국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봉건사회라는 도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고구려는 B.C. 2세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 시기를 노예제 사회로부터 봉건제 사회로의 전환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구분의 시점은 사회구성체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 의식과 창조적 능력의 발전을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중시하는 주체사관이 정립된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2. 중세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세 봉건국가체제가 이루어진 시기를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 초, 백제는 1세기 중엽, 신라는 2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주체사관에서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는 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의 소유물이었던 데 비하여 중세 봉건사회는 기본 생산자인 농노가 지배계급에 신분적으로 예속된 불완전한 소유물이었다는 점에서 인민대중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역사 단계라고 한다. 그러나 봉건사회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계급의 착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방법이 직접 소유로부터 제도에 의한 지배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선력사』에서는 삼국부터 조선까지의 국가체제를 일률적으로 인민대중의 착취를 위한 봉건적 통치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라 봉건국가는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봉건적 착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봉건적 통치기구들을 정비하고 더 늘이었다. …봉건국가가 소경을 따로 둔 것은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통치체제를 철저히 세우려는데 있었다. …신라 봉건통치배들은 또한 제놈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군대제도를 더욱 정비·강화하였다. (조선력사(3) : 78)

이와 같이 국토가 통일된 다음 고려 봉건국가는 온 나라에 대한 강한 봉건적 지배체제를 세워놓았다. 이와 같이 우로부터 만들어진 통치 기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봉건 지주놈들의 리익을 옹호해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 반인민적 통치기구였다. (조선력사(3) : 102)

15세기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며 그들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하여 봉건통치기구를 정비해 나갔다. 리조봉건국가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량반 지주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였던 만큼 일부 관청 이름만을 뱉고 배치하는 등의 일을 맡아 보았으며 호조는 토지와 주민을 조사·등록하고 전세, 공물 등 직접 인민에 대한 착취와 관련되는 부분을 맡아 보았다. 병조는 군사 관계, 형조는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경찰, 감옥 등의 일을 맡았고 혜조는 반동적인 유교사상을 선전하고 교육하는 일, 공조는 관청 수공업과 토목건축공사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조선력사(4) : 5-6)

같은 맥락에서 각 국가에서 시행된 제도 역시 인민대중의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데 서술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정전제도는 봉건국가가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고 착취하는 제도였다. 봉건국가가 정전제도를 실시한 것은 농민들을 토지에 얹매 놓고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착취 원천을 더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전을 받은 농민들은 그 땅에 얹매여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봉건 통치배들과 지주놈들의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력사(3) : 80)

이로부터 고려 통치배들은 먼저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놈들은 농민들에게서 받아들이던 조세를 일부 줄이거나 면제해 주며 량인들이 몰락하여 노비로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량인으로 만드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과 함께 농민들을 토지에 얹어매 놓고 착취를 더욱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력사

(3) : 98)

리조 봉건통치배들은 139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노비정리 사업을 벌여 노비들을 량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국가노비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량인이나 국가노비로 된 그들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많은 노비들이 개별적으로 봉건왕반놈들의 지배 밑에서 벗어나 량인으로 또는 국가노비로 됨으로써 봉건국가의 착취 대상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조선력사(4) : 5)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지배층 및 통치기구의 성격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삼국부터 조선까지를 똑같이 반민족적 착취기구라고만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 지배층의 경우 문벌귀족-무신-권문세족-사대부라는 지배층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성격 변화나 통치 방식의 차이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민대중에 대한 봉건지배계급의 수탈을 강조하면서도 각 시기 인민대중의 존재 양태와 그에 대한 수탈 방식의 변화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조선전기 피지배계급의 기본을 사회경제적으로 봉건적 예속민이나 농노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인 신분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예속되어 수탈을 당하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삼국시대 하호와 같은 성격, 같은 방식으로 수탈당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오랫동안의 역사적 변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각국이 행한 제도에 대해서도 인민의 계급투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원칙론적인 설명에 집착한 나머지 당시 사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는 서술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722년(성덕왕 21년) 통일신라에서 시행된 정전의 지급은 대토지 소유의 확대에 따라 농민의 토지가 침탈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수취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자영농을 보호하고 조세를 안정적으로 거두어 들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정전 지급의 본래의 목적은 국가가 조세의 수취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 제한적이나마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음도 사실이다. 정전의 지급이 봉건국가가 착취의 원천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조선력사』의 설명은 정전 지급의 의도를 강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정전을 지급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 또한 일정 정도 농민 항쟁의 결과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역사발전의 동인이 인민대중의 투쟁이라는 북한의 기본적인 역사관과도 맞지 않는 느낌을 준다.

중세 사회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종교나 사상에 대한 서술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종교나 사상은 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을 착취하기 위하여 보급한 것으로 역사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불교 미술 등 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그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민대중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점과, 특히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 부분에 대한『조선력사』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는 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겁을 먹은 지배계급이 제놈들의 권세와 재산을 보호하며 자기나라 인민과 다른 나라 인민의 피땀을 손쉽게 짜낼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였다. 이와 같이 종교는 돈있고 권세있는 놈들이 인민들을 착취하고 다른나라를 침략하는데 써먹는 아편으로 그것은 사회와 경제와 문화 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지난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해독적 역할을 논 종교는 유교와 불교였다. (조선력사(3) : 68)

신라에서 만든 이러한 종(황룡사종, 봉덕사종—인용자)들은 봉건 통치배들이 인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 불교를 선전하는데 이용되었다. (조선력사(3) : 91)

고려자기에는 고려 사람들의 뛰어난 지혜와 창발적 재능이 깃들이였다. 그러나 당시 이 좋은 도자기들은 봉건통치배들이 독차지하였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봉건 지주계급의 리익을 옹호한 착취계급 사회였기 때문이다. (조선력사(3) : 143)

그러나 이 모든 것(흔의, 간천의, 해시계, 물시계, 흠흥각·인용자)은 왕궁 안에 만들어져 있었으므로 권세있는 량반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 그러나 봉건사회에서 의학은 봉건통치배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인민들에게 그 혜택이 차례지지 못하였다. 15세기 역사책들을 편찬하는 사업도 진행되었다. 특히 리조 봉건통치배들은 역사 편찬 사업을 왕권을 강화하고 인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력사(4) : 25-26)

유교와 불교가 역사 발전에 가장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는 것은 삼국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그들의 이데올로기화한 관념론적 사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불교나 유교를 받아들이기 이전 고구려에 유물론적인 《기》의 사상이 있었고,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노자의 도가 철학이 발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진보적이거나 변증법적인 사상이 발전하여 사대주의가 없고 민족적 긍지가 높으며 애국심이 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와 유교의 도입으로 이러한 진보적 사상들이 자취를 감추고 사대적이며 반인민적인 종교와 사상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행사상의 경우 발생 초기에는 소박한 유물론적 사상이었으나 유학자들에 의하여 신비화, 관념화한 지배계급의 세계관이 되어 근로인민대중의 정신생활과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삼국사회에서 불교가 현실사회의 계급간 차별을 인정하는 지배계급의 이념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가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계급사회 자체도 일정한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면 그 역사적 단계에 따라 불교의 성격도 변화할 것이다. 또한 불교가 우리 민족의 사상, 문화적 기반으로 내면화, 토착화되는 과정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력사』에서는 평면적 서술로 이를 사회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불교나 유교사상의 변화에 대한 서술도 찾아볼 수 없다. 불교와 유교의 상호작용이나 차이에 대한 서

술도 없으며 그것이 사회에 끼친 영향도 천편일률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종교 사상을 단지 청산해야 할 봉건시대의 잔재라는 도식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조선력사』는 불교나 유교가 학문이나 사상의 발달에 끼친 일정 정도 긍정적 역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느낌이다. 유교가 한문을 통하여 경전의 이해 및 사회의 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는 데 기여한 점이라든지 불교가 호국 사상이나 민중의 정신 세계에 미친 영향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 전반에 관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근대 사회의 많은 문화유산들은 지배층의 문화이며, 문화 발달의 주된 수혜자는 지배층이었다. 문화를 단순히 예술적 가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역사 이해에서 필요한 태도이다. 그러나 『조선력사』에서는 이를 ‘지배계급만이 이용하였다’ ‘인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일반론의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을 뿐 각 시기의 문화 유산들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모든 문화유산이 피지배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일반 민중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음도 사실이나 이는 무시되고 있다.

『조선력사』의 이러한 서술 태도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한 서술이다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를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문자를 필요로 하였으나 지배층으로서는 봉건 통치 사상의 보급을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훈민정음의 창제가 인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종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들은 우리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한편 봉건통치배들도 우리 인민들에게 봉건사상을 더 잘 내려먹이기 위해서도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였다. (조선력사(4) : 22-23)

훈민정음의 창제가 조선 정부의 지배 목적의 일환으로 왕권의 정당성과 존엄성을 고취하고 유교적 생활 규범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는 남한의 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아직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조선 초 유교정치가 가지는 민본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도 유력한 설정이다.

『조선력사』 중세 부분의 서술이 『국사』와 가장 다른 부분 중의 하나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삼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와 백제를 합하여 하나의 절로 묶은 반면, 고구려는 별개의 절로 다루고 있으며, 고구려 인민들이 반침략 투쟁, 고구려 문화와 사상의 자주성 및 주체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역사 서술에서 고구려에 관한 부분의 분량이 많

은 것은 고고학적 발굴 등을 통하여 고구려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많은 데 비하여 백제, 신라, 가야에 관한 자료의 입수 및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데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고구려를 삼국의 정통으로 서술하려는 의식 또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주체사관에 입각한 역사 인식을 고구려사에 투영시키려고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삼국의 정통을 고구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라에 의하여 이루어진 삼국 통일에 대한 평가는 극히 부정적이다.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세를 끌어들인 반민족적, 반인민적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신라에 의한 민족의 통일은 인정하지 않은 채 '통일신라' 대신 '후기신라'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최초의 민족 통일은 고려에 들어서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 침략자들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국토의 많은 부분을 당나라 침략자들에게 빼앗기게 하였다. (조선력사(3): 70)

신라 봉건통치배들은 이 때 응당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구려 인민들과의 힘을 합쳐 당나라 침략자들을 이전 고구려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신라 봉건통치배들은 제놈들의 나약성과 비굴한 사대굴종사상으로 하여 고구려 땅에서 당나라 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결과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 침략자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강점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압록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인민들은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력사(3): 72)

위와 같은 서술은 삼국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국사』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국사』에서는 삼국통일의 의의를 민족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 문화의 기틀을 확립하였고,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지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국사(상): 52) 남한의 학계에서도 만주 상실과 외세의존이라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라가 일통삼한(一統三韓)의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일 후 민족융합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것 등을 들어 삼국통일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근래 남한에서도 발해가 우리의 역사를 중시됨에 따라 개정된 현행『국사』 교과서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 국시대로 서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의의와 그 자주성은 오히려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남·북 교과서의 차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분단된 남북이 서로 자기 편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와도 관계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부터 조선까지에 걸친 중세봉건사회에 대

한 『조선력사』의 서술이 남한의 교과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 사회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조선후기로 보고 있는 것은 남·북한 교과서가 마찬가지이다. 『조선력사』에서는 봉건사회 붕괴 위기의 대표적 징표로 신분제도의 붕괴를 들고 있다. (조선력사(3) : 68-69)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해방 후 남북한 역사학계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두고 연구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일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조선력사』에서는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으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에 대한 『조선력사』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점차 늘어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18세기 중엽부터 봉건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생겨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돈많은 부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켜 상품을 만드는데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생겨나려면 많은 돈을 가진 부자와 돈을 받고 로동력을 파는 품팔이군이 있어야 한다.

(조선력사(4) : 65)

이렇게 삽돈을 받고 로동력을 파는 임금 로동자와 그들을 착취하는 자본가가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새로운 자본주의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 시기 자본주의적 관계는 아직 미약한 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 점차 넘어가고 있었던 것을 말하여 준다. (조선력사(4) : 66-67)

낡은 봉건 사회가 소멸되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사회발전의 법칙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관계가 생겨났다고 하여 인민들의 생활 처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사회도 봉건사회에서 봉건지주가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압박하는 것과 같이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였다. (조선력사(4) : 68)

북한에서 이 시기의 역사 서술에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을 중시하는 이유는 2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원시공동체→노예제사회→봉건제사회→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라는 역사 발전 단계에 맞춰 이 시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서 타율성을 배격하고 자율적으로 봉건사회가 허물어지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이 시기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의 중요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상인자본의 성장 및 이들에 의한 소생산자층 지배, 생산력 발전과 봉건적 착취의 강화로 인한 몰락 농민층의 임노동자화, 광업 및 일부 수공업에서의 공장제수공업(매뉴팩처)의 형성 등이다. 이 시기를 자본주의 사회로의 과도기일 뿐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르죠아 정치세력으로서의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의 조류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함으로써 사회 변화가 가져오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와 유사한 이해는 남한의 학계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이라고 명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3. 근대

『조선력사』의 근대 부분에서는 주로 민족운동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 민족 운동의 과정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반외세투쟁과 봉건적 잔재를 없애기 위한 반봉건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남·북한 모두 차이가 없다. 북한에서는 1860년대부터 3·1운동 시기까지를 부르죠아 민족운동 단계로 보고 있다. 개화파=지도역량, 농민층=추동력으로 설정하여 놓고 동학농민운동이나 항일의병운동이 부르죠아개혁에 추동적 역할을 하였으며, 부르죠아 개혁의 움직임과 그 이념이 농민운동에 계승되었다는 상호 관계 속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를 부르죠아 민족운동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 원칙에 따른 것이다. 역사의 동인인 인민대중의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노예혁명→부르죠아혁명→반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사회주의혁명으로 상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개화파의 민족운동을 부르죠아 혁명 내지 부르죠아 개혁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화사상을 부르죠아개혁사상으로 보고 갑신정변은 부르죠아혁명, 갑오개혁은 부르죠아 개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독립협회와 애국계몽운동도 이를 계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력사』의 근대 민족운동에 대한 서술도 개화파의 민족운동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개화사상은 넓고 뒤파어진 봉건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자본주의 제도를 세워 나라의 부강 발전을 이룩하려는 부르죠아 개혁 사상이었다. (조선력사(4): 90)

1884년의 부르죠아혁명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우리나라 근대 혁명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884년 부르죠아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난 부르죠아혁명으로서 부르죠아 민족운동 발전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았을 뿐 아니라 그 후 부르죠아 민족운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혁명은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놈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한 혁명이였다. 그러나 이 혁명은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요구에 맞게 넓고 썩어빠진 봉건제도를 뒤집어 엎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근대적 발전을 이룩하려고 한 그 때로서는 진보적인 혁명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이 혁명은 우리 인민들을 크게 깨우쳤으며 1884년 부르죠아혁명에서 제기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요구들은 1894년 갑오개혁, 농민전쟁, 반일의병 운동과 애국문화운동 등 부르죠아 민족운동에 반영되었다. (조선력사(4): 117-118)

군국기무처가 수행한 이 모든 조치들은 우리나라가 부르죠아 개혁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우로부터 부르죠아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족점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죠아 개혁에는 농민들이 『전주화의』에서 들고 나온 부분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농민들의 근본 문제인 토지에 대한 요구를 전혀 내놓지 못하였다. 이것은 개혁 담당자들인 혁신관료들의 사상적 및 계급적 제한성과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혁신관료들은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힘에 의거할 대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밀리하였다. 1894년 부르죠아개혁은 또한 불철저한 개혁이였다. 이 개혁은 인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다만 늦찾하고 일부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을 뿐이였다. 그러나 1894년 부르죠아개혁은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제기한 개혁강령의 부분적인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인 개혁이였다. 또한 이 개혁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 자주권을 지킬 것을 지향한 애국적인 개혁이였다. (조선력사(4) : 130-131)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애국문화운동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지키며 봉건적 략후성을 없애고 나라를 근대화하기 위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운동이였다. 그러나 애국문화운동은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 운동이 애국사상과 선진지식으로 인민들을 깨우치는 데 머무르고 일제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였다. … 또한 이 운동은 하나로 통일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제가끔 豐豐히 흩어져 벌어졌다. 애국문화운동의 이러한 부족점은 이 운동의 지도층인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사상적 제한점에서 온 것이였다. 그러나 애국문화운동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각을 높이며 우리 민족의 단합을 굳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애국의식을 높임으로써 인민들의 반일구국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애국문화운동을 통하여 나라를 근대화하고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이 널리 벌어지게 되었다. (조선력사(4) : 150)

한편, 남한에서도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등에 대한 타율적이고 부정적인 평가에서 탈피하여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화사상을 부르죠아 개혁사상으로, 갑신정변을 부르죠아 개혁운동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부르죠아개혁이라는 용어는 그 목표가 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봉건지배층 내부의 개명적 관료들이 국가를 매개로 위로부터 자본주의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무력에 의한 정권 획득을 전제로 하는 부르죠아 혁명으로 보는 북한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력사』는 『국사』와는 달리 민족운동의 실패 원인을 외세의 개입이라는 대외적 요인 못지 않게 운동의 내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개화파의 계급적 한계를 운동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민족운동의 성격을 운동의 구체적 내용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개화파가 행한 민족운동에 대한 『조선력사』의 전반적인 평가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이들 민족운동을 부르죠아 민족운동으로 설정하려면 부르죠아 계급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 부르죠아의 질적, 양적 성장이 부르죠아 개혁을 요구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부르죠아 개혁운동이 가지는 역사 발전의 합법적 성에 치중한 나머지 이를 운동 주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동 방향이나 성격 등은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애국계몽운동이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방법에서는 궁극적으로 독립 전쟁을 통한 국권의 회복을 피한 경우로부터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까지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조선력사』는 개화파 계열의 민족운동을 역사 발전의 합법적 과정으로 보고 있는 데서 이와 방향을 달리하는 개혁이나 민족운동은 무시하거나 역사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척사운동은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대원군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무너져 가는 봉건제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의 발전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원군의 이러한 정책은 결국 무너져 가는 봉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봉건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발전이나 인민들의 생활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조선력사(4) : 89)

대원군 정권의 이러한 반침략적인 조치들은 외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자본주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정책도 이미 낡아빠진 봉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나라의 발전에 큰 후과를 끼쳤다. (조선력사(4) : 90)

북한에서도 대원군의 정책이 민족적 위기를 막아보기 위한 것으로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을 막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권이 위태로웠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봉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력사』에서는 이 시기 또 하나의 흐름인 아래로부터의 민족운동 역시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고 부르죠아 민족운동을 추동하였다는 점에서 중시하고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친 민중운동을 반침략, 반봉건의 부르죠아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사』에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은 개항기 민란이나 농민들의 반일항쟁, 광무연간의 민중항쟁 등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아래부터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과 반일의병 항쟁의 경우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과정에 대한 서술은 『국사』와 비슷하지만 그 평가에 있어서는 다르다.

농민전쟁(동학농민운동-인용자)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농민전쟁은 무엇보다도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과 외래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조선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민족의 존엄을 널리 시위하였다. 농민전쟁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발전을 널리 추동하였다. 1894년 농민전쟁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근대화를 위한 투쟁이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줄기차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직접적으로는 1894년 부르죠아개혁을 실시하도록 힘있게 추동하였다. (조선력사(4) : 127)

19세기말~20세기초에 줄기차게 전개된 조선인민의 반일의병운동은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조선 인민의 강한 애국심과 높은 투쟁 기세를 똑똑히 보여 주었다. 그러나 반일의병운동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반일의병운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우선 이 운동이 선진 계급의 영도를 받지 못한데 있다. 반일의병운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또한 이 운동이 통일적인 지휘가 없이 여러 곳에서 제가끔 싸운데 있었다. 반일의병운동은 이러한 부족점으로 하여 일제의 탄압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였으며 나라 안에서 더는 투쟁을 계속할 수 없었다. (조선력사(4) : 145-146)

동학농민운동을 농민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이 갑오개혁에 끼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국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래 남한의 학계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을 농민전쟁으로 보려는 견해가 많아져 가고 있으며 그것이 갑오개혁을 시행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조선력사』는 개화파=지도층, 농민=추동력이라는 도식에 맞춰 농민운동의 이념이 부르죠아 개혁 사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서술이 공정되려면 개화세력이 민중운동과 동맹을 맺을만큼 혁신적이었는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의병항쟁의 경우 그 의의는 간략히 서술하고 있는 반면, 실패 원인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의병항쟁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선진 계급의 영도, 통일적인 지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의 논리에 의한 해석이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민대중의 개별적 성원들은 자기들의 협소하고 일시적인 요구는 인식할 수 있으나 인민대중 전체의 근본 요구, 공동의 요구를 스스로 깊이 인식할 수 없으며 당면한 이익과 전망적인 이익을 올바로 결합시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 올바른 영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병운동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민족해방운동의 시작은 1920년대 후반 김일성에 의하여 영도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항일투쟁으로 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전 인민대중의 운동은 역사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기는 하지만 김일성 및 당의 올바른 영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의 민족운동사는 김일성에 의한 이른바 '참민족해방운동'으로의 과도기, 준비기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옹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평양 인민들에 의한 미제 침략선 『샤만』호의 격멸'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있는 제네랄 셔먼호 사건이나, 안중근, 장인환, 전명운, 이재명 등의 의열투쟁에 대하여 그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서술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김옹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만경대와 평양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첫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루하였으니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첫걸음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침략선 『샤만』호를 대동강 물 속에 처박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김옹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희생적인 투쟁의 결과였다. (조선력사(4): 94)

그러나 안중근의 활동은 근본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강도 일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탔으나 투쟁의 길을 밝혀주는 옳은 지도자가 없었음으로 하여 옳은 투쟁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개별적인 몇 놈의 원쑤들을 처단하면 나라의 독립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로부터 한두 사람의 힘으로 몇 놈의 원쑤들을 쏴 죽이는 개인 테로의 방법에 의거하게 되었다. (조선력사(4): 144-145)

3·1운동을 민족운동의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서술 내용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사』와 차이가 많은 『조선력사』의 3·1운동 서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부으신 조선국민회의 투쟁 강령이 널리 퍼지고 그의 활동이 힘있게 벌여집에 따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이루하려는 열망과 반일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조선력사(4): 154)

3·1인민봉기는 평양에서의 대중적인 독립만세 시위 투쟁을 첫 봉화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평양 인민들의 봉기에서는 조선 민족해방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 영향을 받은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3·1인민봉기의 불길은 만경대와 칠풀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만경대와 칠풀 인민들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신 강돈육선생님과 열렬한 반일혁명 투사이신 강진석선생님의 지도 밑에 남자와 여자,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시위에 떨쳐 나섰다. 그들은 조선독립만세를 힘있게 외치면서 평양성으로 몰밀듯이 밀려들어갔다. 이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여덟살되시는 어리신 몸으로 반일시위대열에 참가하시여 30여리나 되는 평양 보통문 밖까지 가시였다. (조선력사(4): 155)

봉기의 첫 시기는 주로 도시들에서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벌어졌으나 투쟁의 불길은 점차 농촌 지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로동자, 인민들이 투쟁의 기본 힘�이 되었다. 이 시기 로동계급은 각기 시위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일제의 헌병, 경찰 기관들을 들이치거나 파업을 일으켰다. 3월 3일 송림 제철소 로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벌렸으며 3월 9일에는 서울전차운전수와 통산철도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서울 시내의 반일 시위에 커다란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로동자, 농민들이 투쟁에 적극 나서게 되자 봉기는 시위로부터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때에 부르죠아 민족주의

자들은 인민들에게 외세의 존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면서 3·1인민봉기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력사(4) : 156)

3·1인민봉기 때 로동자들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나 아직 계급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민족해방운동을 혁명적으로 령도할 수 있는 자기의 당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3·1인민봉기에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으나 옳은 투쟁강령을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 세우며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무제한으로 발휘시키지 못하였으며 자연발생성을 극복할 수 없었다. 3·1인민봉기가 실패하게 된 것은 또한 전국을 군대와 현병, 경찰들이 뒤덮고 총칼로 짓누르는 침략자들에 대하여 평화적 시위나 산발적인 폭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데 있었다. 또한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배신행위는 3·1인민봉기를 실패로 돌아가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인민대중의 양양된 반일기세에 결붙어 봉기의 지도층에 기여든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일제에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얻어보려고 꿈꾸었다. 그러다가 인민들의 투쟁이 폭동으로 넘어가자 항쟁에 나선 인민들을 저버리고 일제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심지어 자기 민족을 업수이 여기고 남을 승배하는 민족주의자들은 미제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얻어보려고 하였다. (조선력사(4) : 158-159)

3·1인민봉기의 실패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3·1인민봉기는 인민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의 령도 밑에 올바른 투쟁목적을 내세우고 투쟁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는 또한 자체의 튼튼한 주체적 힘에 의거하여 싸울 때만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매국적 정체를 더욱 똑똑이 알게 되었으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가치 밑에서는 나라의 독립도 인민의 자유와 해방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이리하여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시기는 끝장이 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조선력사(4) : 159)

3·1운동에 대한 『조선력사』 서술의 특징은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3·1운동을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보면서도 그 주체로 농민, 노동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평양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등 김형직을 비롯한 김일성 일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패 원인을 수령의 영도 문제와 연관 짓고 있다.

세째, 3·1운동을 계기로 부르죠아 민족운동이 끝이 나고 민족해방운동의 주도권이 노동계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1운동의 참가자는 거의 모든 국민 각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민이 전체 참가자의 절반을 넘으며, 적극적 참가자에는 노동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사』에서 3·1운동이 단순히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벌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

과는 달리 대중의 참가가 높아지면서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조선력사』의 서술처럼 인민이 시위에서 공세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에서도 전자를 중심으로 3·1운동을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제의 악랄한 탄압이 3·1 운동의 폭력화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력사』에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3·1운동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일가, 특히 김형직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평양에서의 3·1운동이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인 김형직이 혁명의 씨앗을 뿌려놓고 반일독립운동의 밑음직한 거점의 하나로 꾸려놓은 평양승실학교의 애국청년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났다는 것이다. 강진석과 강돈욱, 김일성의 3·1운동 참가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평양에서의 3·1운동을 중시하는 데는 이와 함께 북한 중심의 역사 서술과 북한 지역의 항일민족운동을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이 항일 무장투쟁의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 3·1운동이 북부지방으로부터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었다든지, 3·1운동 초기 반일 봉기가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벌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봉기가 운동 초기 다른 지방보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안도 지방의 경우 봉기는 주로 3월초와 3월말~4월초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 보다 봉기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3월초 뿐이다. 평양 지역이 3·1운동 초기 중심지가 된 것이 기독교 세력이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승훈 등 '민족대표'들과 밀접한 관련 아래 봉기가 진행되었으며, 3월 하순 이후 평안도의 농촌, 산간 지역에서 발생한 봉기는 천도교측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또한 3·1운동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¹²⁾

3·1운동에 대한 서술에서는 이제까지 역사 발전에서 봉건제도를 타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3·1운동을 기점으로 역사 발전의 단계를 부르죠아혁명의 단계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단계로 전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를 발전시키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긍정적 역할은 역사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역할로 바뀌는 것이다. '민족대표 33인'에 대하여 '일제에 애걸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얻으려고 꿈꾸었다' '자기 민족을 업수이 여기고 남을 승배하여 미제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얻어보려고 하였다'는 평가는 이러

12) 남한 개설서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동시' 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로 표현하고 있다.

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족대표 33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3·1운동을 둘러싸고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3·1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지도자라는 궁정론, 월손의 민족자결주의에 환상을 품고 독립운동을 준비하였으나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두려워 하여 일제에 투항하였으며, 비폭력 노선을 택함으로써 운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부정론,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조선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였고, 비폭력주의는 무장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의 인식에 따른 것이며, 적어도 3·1운동 초기 단계에서는 지도를 수행하였다라는 제한적 궁정론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운동 참여 동기, 이념, 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3·1운동 초기 기폭제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데는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족대표’가 ‘인민대중의 양양된 반일기세에 결붙어 봉기의 지도층에 기어들어갔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매국적 정체를 더욱 똑똑이 알게 되었다’는 『조선력사』의 서술은 문제다 있다. 이를 ‘3·1인민봉기는 인민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의 령도 밑에 올바른 투쟁목적을 내세우고 투쟁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서술과 연결지어 볼 때 김일성의 영도에 의한 민족해방운동, 공산주의 운동만이 올바른 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다.

IV. 맷 음 말

이상에서 북한의 역사교과서인 『조선력사』의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우리나라 역사 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선력사』는 북한 사회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의 원리에 의거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편지배 인민의 입장에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고 있다. 김일성의 교시나, 근대사에서 김일성 일가의 활동이나 수령 영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체사상 및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교양이 역사교과서 서술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육성이라는 북한의 역사교육 목표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교과서 서술은 주체사상이 유일사상화 하기 이전 쓰여진 1960년대 까지의 역사 교과서가 맑스 레닌주의적 유물사관을 중시하고 생산양식의 변천과정 을 위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¹³⁾

시대구분이나 조선후기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근대 민족운동에 대한 서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 발전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북한 지역의 역사에 대한 서술 비중이 남한의 교과서에 비해 높다는 점도 『조선력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조선력사』는 남한 교과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한국사 이해에서는 여러가지 견해나 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토론을 통하여 정리된 하나의 통일된 관점만이 있을 뿐이다. 『조선력사』의 서술도 북한 역사학계의 한국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남·북한 역사교과서 서술의 차이는 한국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 및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역사 연구 및 역사교과서 서술은 자기 체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교과서 서술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은 장차 역사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긴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⁴⁾

참 고 문 헌

1980. 『조선전사』 1-15, 평양: 사회과학·백과 출판사.
1982. 『조선력사』(고등중학교 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
1983.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
-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1984). 『국사』(상), (하).
-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1990). 『국사』(상), (하).
- 강우철, 신형식(1990). 남·북한 국사교과서(중학교)의 비교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 원논총』 57.

13) 1970년대 이전 북한 역사교과서의 분석·비판은 다음의 논저를 참조.

박동현(1972). 『북한의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국토통일원.

김영찬(1977).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 내용 분석, 『북한 조사연구—사회 문화: 북한의 국사관 비판 논문집』. 국토통일원.

이원순(1977). 북한의 역사교육. 『북한교육론』. 북한문제연구소.

14) 이 연구가 끝난 다음, 1984년부터 새로운 『조선력사』가 출간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서술의 양, 시대 폭 등에 관한 서술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李讚熙, 《北韓의 歷史教育 研究》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2. 참조.

- 금성청년출판사 편(1982). 『주체의 학습론』(1982. 서울: 미래사. 재인쇄).
- 김석형(1966). 역사 연구에서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을 관철할 데 대하여, 『역사과학』 1966년 6호.
- 김일성(1955).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백두연구소 역음. 1988.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1』 서울: 백두. 수록).
- 김일성(1968). 학생들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 하자. 조선로동당출판사(1969).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1974. 동경: 구월서방. 번각 발행).
-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형찬 편. 1990.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수록).
- 김정배 편(1989).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서울: 을유문화사.
- 김정일(1972). 주체사상에 대하여. (편집부 역음. 1989. 『주체사상연구』. 서울: 태백사. 수록).
- 김형찬 편(1990).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 김홍수(1989). 『조선전사』 근대편의 분석 비판. 『국사관논총』 5.
- 리영복(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성봉(1989). 『조선전사』 원시·고대·고려편의 분석 비판. 『국사관논총』 3.
- 박찬승(1990). 한국근대 민족해방운동의 동향과 『국사』 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47.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77). 『조선통사(상)』. (1988. 서울: 오월, 재인쇄).
- 과학원 역사연구소(1958). 『조선통사(하)』. (1988. 서울: 오월, 재인쇄).
- 사회과학출판사 편(1985).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1989. 서울: 백산서당. 재인쇄).
- 안병우·도진순 편(1990). 『북한의 한국사 인식』 (I), (II). 서울: 한길사.
- 안형섭(1972).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백두연구소 역음. 1988.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1』 서울: 백두. 수록).
-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반 역음(1990). 『쟁점과 과제: 민족해방운동사』. 서울: 역사비평사.
- 전영률(198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 중앙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나라 역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하는 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역사과학』 1981년 제4호.
- 정도월(1985). 현행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분석적 고찰-중학교 학습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용욱 외(1989).『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근현대편)』. 서울: 일송정.

한국역사연구회(1992).『한국역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3·1민족해방운동연구』. 서울: 청년사.

허종호(1981). 주체의 역사관 연구의 몇가지 문제.『역사과학』1981년 제1호.

Abstract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in the North Korean History Textbook

Sei Chul Yun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North Korea, the ultimate goal of history education has been training its students as the socialist revolutionaries. The Chu Che Thought(주체사상), North Korean version of Marxism, is the principle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Thus, people's struggle for securing independence, associated with class struggle and anti-imperialistic war, has been regarded as the prime mover of historical development.

History textbooks in North Korea, Choseon Ryuksa(조선력사), are not exceptional in their interpretative scheme. The Chu Che Thought system, as the most scientific method of historical explanation, has applied to every aspect of historical description such as periodization, the rise of capitalistic trend and modern independent movement.

Among others, the textbooks show following distinctive aspects which are difficult to find in the history textbooks in South Korea;

1. Periodization is based on Marxism.
2. The degree of revolutionary contribution is the sole criterion to judge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facts.
3. The history of the northern part is relatively more emphasized.
4. Kim, Il Sung's family played a major role in the anti-imperialistic movement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Korea.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extbooks in North Korea and those in South Korea are tremendous. They are basically originated from ideological differences and research works which complies with them. Now, it is the time that we sincerely seek to restore national homogeneity and overcome two-Korean-problems through history education.